농가 깔짚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 우린네이처 고영규 대표

축산업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양계장에서의 악취문제는 닭의 건강뿐 아니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계분을 계분창고에서 발효를 시키든 콤포스트 등을 통해 계분을 처리하는 농가들도 계분에 대한 악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린네이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제제와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제품을 개발, 공급해 오면서 농가들로부터 꾸준히 호평을 불러오고 있다.

이웃과 함께

우린네이처(대표 고영규)는 1992년 '벗과 같이 이웃과 같이=우린(友隣)' 라는 기업이념을 모토로 창업하였다. 당시에는 오퍼 및 컨설팅으로 시작하였고, 1995년에 '우린물산' 으로 수입판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

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축산 환경과 천연물 전문 기업'을 기치로 '우린네이처'로 개명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공부한 고영규 대표는 선진그룹 양돈장인 코리아화암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이후 사료첨가제 수입업체와 동물약품 제조업체를 거쳐 1992년에 독립하면서 친환경제제와 악취제거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린네이처는 회사 창립 당시부터 축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형 제품만을 취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축산물 생산 흐름의 변화와 해외 축산박람회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종합해 축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미래형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고 대표는 생약제제 등 필요한 제품 발굴을 위해 전 세계 시장을 노크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생약제제에 대한 연구가 깊고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도의 인디안허브스(Indian Herbs) 회사는 1951년 창업하여 민간요법을 가축에 적용한 회사로 세계의 생약제 시장을 리드하고, 실제 제품을 접해보면서 더욱 믿음을 갖게 했다.

악취저감 1위 제품, 뉴트로의 명성

국내에서 악취저감제를 뽑으라면 축산농가는 당연히 '뉴트로'를 언급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 한돈협회에서 '한돈농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분석 발표회'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67개 제품 중 '뉴트로'가 악취저감률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농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 뉴트로(악취제거)

뉴트로는 1995년 판매를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장수제품이다. 당시만 해도 악취 저감 제품 판매를 위해 농가에 가면 불신을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제품 효능에 확신이 있었기에 전 직원들이 가스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제품 사용 전과 후를 측정해 확인시켰고, '선효후불제(먼저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대금을 지불하라)'란 용어를 만들 정도로 전략을 펴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수고 없이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농가에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뉴트로는 콤포스트나 발효장에서 냄새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발효를 촉진시키는 작

용을 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오래전부터 농가에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면서 계절이나 온도, 소독약 살포 등의 외부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해가스를 잡아준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실험에서도 99.6%의 높은 암모니아 제거율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에어리페어와 FS 골드는 계분이나 유기물의 주요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메르캅탄 등 다양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작용범위가 다소 달라 함께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주로 계사 내외부 가스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며, 발효장, 탈취기, 깔짚의 가스 및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슬러지제로'도 못지않은 우린네이처의 대표 제품이다. 슬러지 제로는 호주산 토양 미생물을 이용하여 노하우 방법으로 발효시킨 발효배양물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매우 유익한 많은 성분들이 분뇨 중에 있는 미생물의 영양물질 및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 분뇨 자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을 활성화함으로써 발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 뉴트로(악취제거)

분뇨 내 자체 발효균들을 활성화하여 발효를 가속화시키고, 피막 및 슬러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악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농가 깔짚 재활용 방법

우린네이처 제품을 이용하여 깔짚을 발효시켜 재활용하는 방법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출하가 끝난 바닥 위에 있는 딱딱한 계분덩이를 우선 제거하고 100평당 슬러지제로 1L와 뉴트로 1~2kg를 물 300~1,000L에 섞어 충분히 젖도록 분무를 실시한다. 분무는 바닥까지 혼합물이 스며들도록 뿌리는 게 좋으며 최소한 내부로 스며들도록 흠뻑 적셔준다. 이후 로터리로 깔짚을 뒤집어 준 다음 계사를 밀폐하고 온도를 유지하며 가능한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는데 온도가 낮으면 열풍기를 가동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를 해서는 안 된다. 1주일 정도면 발효가 활발해지고 습한 구역에는 방선균이 핀다. 2주가 지나면 질퍽했던 깔짚이 바짝 마르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다. 특히 겨울철에도 높은 온도를 유지할 경우 7~10일 정도면 효과적으로 발효를 끝낼 수 있다.

농가의 실증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나형규

깔짚 재활용

▲ 농장에서 깔짚 재활용

사장(죽림농장)은 뉴트로와 슬러지제로를 뿌리기만 하고 로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발효가 잘되어 입추 후에도 타제품에 비해 월등히 가스가 거의 없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전남 영광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정효수 사장(송암농장)은 굳어있는 계분 덩어리를 제거하고 사용한 깔짚을 한곳에 모아 높게 쌓아두는 형태로 발효를 시켰는데 퇴비를 쌓는 것이 다소 번거롭긴 했지만 발효가 잘 되었다고 한다. 시험적으로 '슬러지제로'만 사용하였는데도 2주 정도로 약간의 발효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냄새가 거의 사라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 뉴트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추 전 황산알루미늄을 뿌리던 것도 생략했는데 슬러지제로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린네이처고 대표는 국내 친환경 축산에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제품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